

번호: OP-M-003				
제 목	병원 및 의사 진료량과 진료결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 동종골수이식술을 중심으로 Physician and Hospital Volume-Outcome Relationship in Allogeneic Bone Marrow Transplantation			
저 자 및 소 속	박춘선1), 조우현2), 안형식1), 남정모2), 강혜영3), 민유홍4) 1)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2)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3)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4) 연세대학교 내과학교실 Park, Choon Seon1), Cho, Woo Hyun2), Ahn, Hyeong Sik1), Nam, Chung-mo2), Kang, Hye-Young3), Min, Yoo Hong4) 1) Kore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2) Yonsei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3)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4) Yonsei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분 야	의료관리 [보건의료의 질]	발 표 자	박춘선 일반회원	발 표 형 식 구 연
<p>배경 및 목적: 실제 보건의료 현장에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구조적 특성에 대한 접근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병원 및 의사의 경험은 중요한 구조적 특성 중의 하나이며, 진료량이 진료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고비용의 중증 질환 및 시술에 대해 이루어졌다. 1970년 이후 임상에서 악성 혈액질환의 치료법으로 골수이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국내에서는 1983년에 성인형 급성임파구성백혈병 환자에서 최초로 동종골수이식이 성공한 이후 지속적으로 시술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현황보고에 의하면, 병원에 따라 진료량과 진료결과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진료량-진료결과 관계를 구명함으로써 질 지표로서 진료량 정보의 활용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p> <p>방법: 이 연구는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성인 급성 및 만성백혈병과 재생불량성빈혈 상병에 대해 시행된 동종골수이식술 자료 전수를 조사하였다. 총 환자 744명중 665명의 자료수집이 가능하였고(회수율 89.4%), 이중 19개 병원, 39명 의사의 자료 650건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진료량 변수는 의사진료량과 병원진료량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병원(의사)이 3년 동안 모든 진단명에 대해 시술한 동종골수이식술 건수를 조사하여 연간 건수로 정의하였다. 진료결과 변수는 이식 후 100일 생존과 1년 생존, 생존기간으로 측정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Cox의 비례위험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p> <p>결과: 단순분석에서 진료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공여자 유형, 주조직적합항원일치도, 진단명, 진단에서 이식까지의 기간, 이식당시 질병상태 등이었고,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을 반영하여 병원(의사)진료량과 진료결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형제자매공여자인 경우에 한해서 병원진료량과 이식 후 100일 생존율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 병원(의사)진료량과 이식 후 1년 생존율, 생존기간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의사진료량과 병원진료량의 조합 효과는, 다진료량병원 군에 제한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진료량병원 군내에서는 의사진료량의 변화에 따른 진료결과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p> <p>결론: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내 동종골수이식술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병원 및 의사의 진료결과가 유의하게 좋았으며, 이를 통해 진료량 정보를 질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다진료량병원에서는 의사진료량보다 병원진료량의 영향이 더 중요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 최소진료량 기준에 대한 정책수립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p>				